

2020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마을공동체 만들기

결과자료집



행복북구문화재단

2020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결과자료집

contents

I. 사업개요	07
1. 사업목적	08
2. 사업 프로세스	08
II.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	11
1.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치	12
2. 도시재생의 유형	13
III. 국내·외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 활동 사례	15
1. 해외 사례	16
1) 런던 헤크니주 달스턴	16
2) 독일 헤센주 뤼베타라우마을	19
3) 독일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21
2. 국내 사례	23
1) 칠곡인문학마을	23
2) 우렁이밥상협동조합	25
3) 북구 내 마을공동체 활동	27
IV. 지역문화 현장 사례 : 북구 관음동 사례	29
1. 관음동 대상지 배경 및 특성	30
2. 관음동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사	32
1) 전문가 자문회의	32
2) 주민들의 입장에서	38
3) 현장답사	43
3. 시사점 및 결론	49
V. 에필로그	51
프로젝트를 마치며	

1. 사업목적	08
2. 사업 프로세스	08

01 사업목적

지역문화인력은 문화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인력이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결핍과 수요를 문화를 통해 채우는 전문인력 이기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알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인력과 근접하게 맞닿아있는 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지역재생 및 도시 재생의 목적은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달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공동체를 형성해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력 기반 확보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기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지역 정체성이 주민에 의해 보존시키는 것이 지역문화인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2020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지역문화인력이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고 지역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역재생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지역재생과 주민커뮤니티 및 문화가 접목한 사례를 학습하고 공동의 발전 대안 모색 및 문화마을로 가는 도시재생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02 사업 프로세스



참가 자문위원

김연호 (사)커뮤니티와경제 팀장(협동조합 지원기관)
김지형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人) 대표
신창섭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재민 (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

1.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치	12
2. 도시재생의 유형	13

01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치

현재 추진된 2020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을 중심으로 사업의 의의를 정하고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등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설정에는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분명하게 지역공동체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품은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재개발 정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도시기능이 부족했다. 전면철거, 수익성 중심의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결과, 지역의 거주공동체가 파괴되고,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사회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현재 21세기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빠른 산업화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계층간의 사회 불평등 및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낮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문제 역시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독신 1인 가구수가 늘고 있는 등 본격적인 무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고민속에 지속 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보다 나은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이 토지건물 소유자 혹은 행정기관이 중심이었다면, '도시재생'은 거주자가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에 집중한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력기반 확보를 꾀하고자 한다.

과거 '도시개발'이 주로 수도권의 수익성있는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면, '도시재생'은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포함,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

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도시개발'이 주택 및 기반시설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정비에 주력했다면, '도시재생'은 사회·경제·문화·물리적 환경 등의 재생에 주목하며, 허물고 없애기보다 남는 유휴부지를 새롭게 활용하는데 주목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①지역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 ②주민참여와 협치, ③지역맞춤형 지원, ④쇠퇴도가 높은 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 ⑤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연계·융합, ⑥부처·부서간 협력에 의한 패키지지원, ⑦재정지원은 공공 공간에 한정하고 민간활력을 활용.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법은 지역의 자발적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자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민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커뮤니티를 보전하고 주민생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02 도시재생의 유형

구분	주거재생형(저층 주거밀집지역)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특성	소규모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	(소규모 저층주거 밀집지역)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 양호집중적 주택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길 정비 등이 필요한 노후주택밀집지(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포함)	(골목상권과 주거지) 공동체회복과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보호가 시급한 지역	(상업, 상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원도심의 공공서비스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가,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
목적/내용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급, 주택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주택정비 등	지역공동체거점조성, 지역복지서비스향상, 골목상권살리기, 생활환경인프라 개선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	원도심 기능회복, 재래시장 등 상권경쟁력 강화, 역사·문화·관광산업 연계,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 지역경제성 강화, 지역창업촉진 (공공기능·상권의 회복과 활력 증진)	신경제거점형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지역적특징에 따른 기반시설정비, 복합영커시설 구축, 배후지역 복합지원
면적	5만㎡미만	10만㎡이하	10~15만㎡	20만㎡	50만㎡
예산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비지원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집행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2017. 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제정리

국내·외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 재생 활동 사례

1. 해외 사례	16
1) 런던 해크니주 달스턴	16
2) 독일 헤센주 위베라우마울	19
3) 독일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21
2. 국내 사례	23
1) 철곡인문학마을	23
2) 우렁이밥상협동조합	25
3) 북구 내 마을공동체 활동	27

01 해외사례

1) 런던 해크니주 달스턴

런던의 대표적
슬럼가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지로

지역사회를 위한 착한 임대업자, HCD

해크니(Hackney) 구의 달스턴(Dalston) 지역은 2006년까지만 해도 마약과 강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런던의 대표적인 슬럼가였다. 그런데 이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도시가 거짓말처럼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1982년에 설립된 해크니개발협동조합(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이 있었다.

달스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의 폭격으로 많은 마을 건물이 붕괴되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빈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스쿼터(Squatter)'가 증가했다. 이들은 1979년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후 스쿼터의 주거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 연합체인 해크니개발협동조합으로 확장된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은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달라는 구청의 부탁을 받고, 구청은 건물을 '통후추 한알' 1파운드 가격으로 100년간 3층 건물을 임대해주었다. 이는 중세시대 영주가 농민들에게 후추 한 알을 받고 논밭을 빌려주었던 전래의 계약방식이다. 정부와의 통후추 한 알 계약으로 시작한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은 낙후된 달스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했다.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은 달스턴의 유휴 건물들의 임대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도시 내 방치되는 공공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장기임대를 하여 건물 보수를 수행한다. 관리를 거친 건물은 지역 내 상인이나 사회적 가치 및 커뮤니티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주변 시세의 70%정도의 값싼 임대료를 적용시켜 상점 및 사무공간으로 제공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만큼 지역 주인이 운영하는 점포나, 예술가, 사회적 기업 등에게 임차 우선권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판단해 선발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약 80개의 상점, 작업실 및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최근 약 65만 파운드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크니개발협동조합에서는 지역개발 관련 기관,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해 달스턴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대표적인 조성공간이 지역 내 주요 광장인 '질레트 광장(Gillett Square)'이다. 한때 주차장이었던 이곳은 마약거래 장소로 사용되는 우범지대였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지역 주민을 위한 멋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2003년 런던시와 해크니개발협

동조합이 '공공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커뮤니티 허브 공간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주최하는 거리 장터가 열리거나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축제, 문화행사,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HCD 헤크니개발협동조합 건물



자료=<http://www.hcd.co.uk>

길레트 광장(Gillett Square)



자료=News-Hackney Council 홈페이지

해크니개발협동조합에는 스스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이 곳에서는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시민의 자제적인 행사 기획을 통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거리장터, 야외 공연 등이 개최된다. 달스톤이스턴커브 정원(Dalston Eastern Curve Garden)이 대표적인 달스톤 시민주도형 성공 사업사례이다.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2012년 건축가와 지역 주민의 협업으로 2010년 봄에 조성된 정원이다. 정원이 만들어지기 전 이 곳은 작은 풋살장 크기의 쓰레기장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장을 새롭게 해 보자며 머리를 맞대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민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건축가가 거의 매일 모여서 정원 조성을 위한 워크숍과 회의를 열었다. 이후 정원이 완공되고 정원의 디자인과 지역을 재설계하는 마스터플랜 '달스톤을 위한 공간만들기'는 2011년 말 Landscape Institute's President's Award를 수상했다.



자료=<https://dalstoneasterncurvegarden.myblog.arts.ac.uk>



자료=<https://dalstoneasterncurvegarden.myblog.arts.ac.uk>



자료=<https://dalstongarden.org/future-of-the-garden>

2) 독일 헤센주 위베라우마을

마을 주민의 삶을
기억하며 연대하는
공동체

한스 헤켈 (위베라우 시의회 의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할 때,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큐On 농촌의 품격 - 공간을 디자인하다

위베라우 마을은 독일연방정부가 인구 3000명 이하의 24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우리 마을에 미래가 있어요'라는 주제의 '전국마을경진대회'에서 2013년 1등을 차지한 곳이다. 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마을발전추진위원회의 몫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독일 중부의 헤센주 라임하임에 위치해있는 위베라우마을, 700여가구의 주민들이 사는 이 곳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200년이 훨씬 넘는 집과 대장간, 마구간 등 마을역사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곳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2005년 마을이 조성된 지 700주년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700주년을 기념하고 마을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되살리자며 '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둔 것은 마을역사의 재발견이었고, 그 하나의 방안이 마을 사진전 개최였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주제를 정해 사진전을 개최하고, 수집된 사진을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한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의 일부 도서관에 비치되어 마을을 알리는데 독특히 한 몫한다. 2016년에는 주민들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의자를 전시하여 '의자특별전시회'를 개최했고, 전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별책부록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마을마을을 700년 넘게 보존할 수 있었던 독일 주민들의 지혜」



자료=2017.08.18 농민신문

마을 역사의 재발견을 위한 대표적인 다른 프로젝트로 마을 교회 복원이 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교회는 수 백 년 동안 마을의 많은 기록을 소장하고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마을의 산 역사나 다름없는 곳이다. 낡고 허물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주민들은 교회의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필요한 예산 100만유로를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달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 5만유로를 모금하고, 외부의 대형교회에 지원을 요청해 95만유로를 확보했다.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질뻔한 교회는 복원될 수 있었고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며 마을의 치매환자들을 돌보며 주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15년 전 만들어진 마을발전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마을의 개발 및 보전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매년 개최한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위베라우 마을에서 열리는 '정원 개방의 날 축제'도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현된 주민들의 아이디어이다. 작은 개인 정원(Kleingarten)이 발달한 독일이지만, 개인주의가 발달해 자신의 정원을 오픈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자신들의 정원을 이웃들에게 개방하여 함께 즐기고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



자료=2020.10.31 KBS 1TV 다큐ON,

3) 독일 베를린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예술·문화·사회
프로젝트 센터가
이곳에 생길 것이다'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은 1970년에 완공된 콘크리트 건물로 구 동독시대 정부가 연방 통계청으로 사용했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이후에는 통일 독일 정부가 사용했다. 2008년부터 건물은 활용되지 못했고 2015년에 재개발이 거론됐지만 그해 가을, 베를린 예술가들이 먼저 건물에 대한 재사용을 주장하며 '예술·문화·사회 프로젝트 센터가 바로 이 자리에 생길 것이다'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10월에 예술인 연합회(Alliance of Threatened Berlin Studios),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 비영리 시민단체와 함께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이니셔티브'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건물



자료=Initiative Haus der Statist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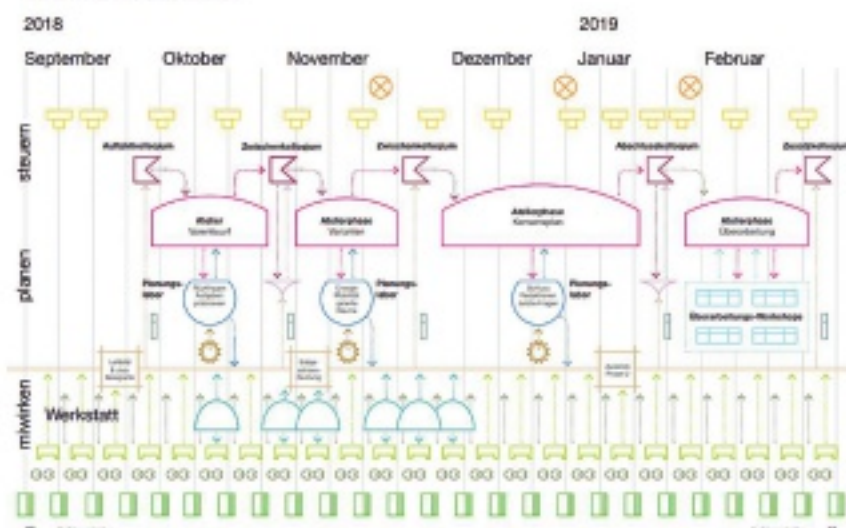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사무실 입구



자료=<https://www.making-futures.com/haus-der-statistik>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지속적이며 지역주민 중심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계획테이블, 워크숍, 시민대표단회의 등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 시민이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정례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최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시 모범이 되는 모델이다.

Verfahrensstruktur



2019년도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마스터플랜

자료=<https://hausderstatistik.org/archiv>

participation 시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		Logbook	로그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된 아카이브. • 행사 진행과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음
		Cafe Statistik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3회 카페 오픈 • 누구든지 커피와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Planning table	계획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개최 • 워크숍 진행과정 발표
		Workshops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개최 • 특정 주제(건물의 재활용, 노후 기반시설, 소음 문제, 주변 교통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워크숍 • 관련 분야의 전문가 초청
		Networking council	네트워킹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마다 개최 • 이해관계자를 위한 심층적 중일 회의 • 이전 단계에서 다뤄진 주요 문제를 논의
planning 개발의 계획 수립		Ambassadors	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계획팀과 일반 시민참여 자간 벌어지는 소통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 •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 사무실에서 상근
		Citizen delegates	시민대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의 시민대표단은 Koop5와 함께 계획 초안 확정
	※ Koop5 : 베를린 부동산 회사(Berliner Immobilien-management GmbH: 이하 BIM), 베를린 도시개발 - 주택부(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이하 SenSW), 미테구청(District Berlin-Mitte), 협동조합(ZusammenKUNFT Berlin eG: 이하 ZKB), 주택협회(Wohnungsbaugesellschaft Berlin-Mitte mbH: 이하 WBM)가 모여 'Koop5'를 설립			
		Planning lab	계획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op5, 계획팀, 지역단체 내 관심있는 팀 의견 협의
		Public events	공공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설계 현황 및 계획 수립 진행상황 공개
project management 결정 및 계획 수행 운영		Studio phase	스튜디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로키움, 워크숍, 계획연구소 세 개의 팀이 설계 진행
		Colloquium	콜로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팀 진행상황 중간 평가 • 추후의 진행을 위해 계획 참고 및 수정사항 추가
		Technical working group	기술실무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op5는 매주 또는 2주마다 '기술적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만남 • 계획 수행 업무 분장
		Steering committee	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미테 구(시)청의 주최하에 매달 Koop5 만나서 주요사항 협의
		Werkstatt	작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개발 프로젝트로 활용된 첫 번째 건물 • 카페, 계획연구소, 콜로키움이 이곳에서 진행됨

02 국내사례

1) 칠곡 인문학 마을

사례 발표 :

(재)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 연구위원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미 칠곡군에서 추진했던 평생학습 도시 정책에서 맥아를 찾을 수 있다. 칠곡군은 2000년 교육문화복지회관이 개관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칠곡군 주민 자치 대학·여성 농업인 대학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4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2005년 칠곡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1년부터는 장기적으로 구축된 평생학습 시스템에 인문학을 접목해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공정 여행',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 등을 진행했다.

칠곡군은 인문학마을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 2012년 12월 마을리더 발굴 및 지역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공동체성이 강한 마을을 찾기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했다. 이는 칠곡군 전체 세 개 읍, 다섯 개 면, 203개 리에 이르는 마을 중 열 개의 마을 선발대를 찾는 과정이었다. 그 중 마을 공동체성이 도드라진 마을 총 스물 다섯 곳을 찾았는데, 이 중 열여섯 곳은 전통 마을(농촌마을)이었고, 아홉 곳은 아파트 마을이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칠곡군의 정체성을 잘 보여 주었다.

인문학마을의 활동은 우선 마을 내 산재한 자원과 사람들을 파악하는 '자원조사'에서 시작했다. 이후,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주관 단체의 컨설팅을 통해 '생각밥상'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생각밥상은 가족이 밥상머리에서 의견을 나누듯이 밥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며, 생각밥상을 통해 1년의 공동체 활동 콘텐츠가 정해졌다.

마을 콘텐츠는 마을마다 다르다. 마을 신문을 간행하는 마을, 주민들이 연극을 하는 마을, 도자기를 빚는 마을, 그림을 그리는 마을, 합창단을 만드는 마을 등 마을이 가진 인문학적 자원에 의해 1년의 마을콘텐츠가 만들어졌다.

평생학습의 뿌리에서 시작한 인문학은 마을과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마을 인문학을 창출했다. 여기서 인문학은 학문적 인문학이 아닌 오로지 주민의 삶에 초점을 둔 인문학이다. 따라서 칠곡 인문학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8개의 인문학 마을 중 한 곳은 칠곡군 부영아파트(석적읍)이다. 부영아파트는 2,800세대가 사는 임대아파트로 인근에 석적공장단지가 있어서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입주주민들의 평균 연령대는 2016년 기준 28.6세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아파트 공동체를 꿈꾸는 부영아파트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였다. 처음에는 "우리 아기 좀 서로 볼래?"였는데, 단순 공동육아 활동

에서 시작한 모임은 조직의 틀이 갖춰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다정다감 공동체'를 주제로 한 육아공동체로 성장했다. 더불어 2013년 인문학 마을 1기로 지정이 되면서, 인문학 마을공동체 활동과 도서관 활동이 결합이 되었고, 마을축제나 장터, 동화책 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현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공동체에 칠곡만의 감성까지 더한 마을도 있다. 칠곡군 북삼읍에 어로리라는 마을이다. 마을에서 드러낼만한 자원이 적고, 공장이 너무 많지만 이 곳에는 할머니들이 주인공인 '보람할매연극단'이 있다.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당시 할머니들에게 한글, 산수 등을 교육하는 성인문해교실인 보람학당이 200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하던 18개 마을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성과발표회를 해야 했고, 대다수 마을에서는 배운 한글을 가지고 백일장이나 시낭송 발표회를 했다. 그 때 국문과를 졸업하고 극단 동아리 활동을 했던 성인문해교실 강사는 연극공연이라는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올랐고 이 아이디어를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다. "할매요, 우리 연극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창단된 '보람할매연극단'은 네 편의 공연을 올렸는데, 연습을 거쳐 공연하기까지 한 편당 1년씩 걸렸다. <활활 간다>, <홍부네 박터졌네>, <홍부네 경사났네>, <거울속에 누구요> 까지 이들은 100여회의 각종 공연과 행사 등에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 연극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보람할매연극단 1기는 졸업을 했고 현재는 2기의 할머니들이 활동중이다. 현재 어로리 마을은 더 이상 삭막한 공장만 있고 내세울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농촌마을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연극단이 활동하는 생동하는 문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북삼읍 어로리, '보람할매연극단 은희식' 열려』



자료=2016.11.28 칠곡 군정뉴스.

2)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사례 발표 :

(사)커뮤니티와경제
협동조합지원기관
김언호 팀장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 마을기업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이 있다. 오래된 마을기업이란 의미로 누구든 터줏대감으로 인정하는 마을기업이다.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이 있는 이곳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곳에는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2003년부터 '와룡배움터'라는 마을공부방이 있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주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일하는 부모들의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네 안에 그러한 부모들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또한 부족했다. 더불어 학부모들은 기존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다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 '와룡배움터'를 만들어 마을의 학부모들이 모였고 공간이나 시설을 어떻게 유지 및 운영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품앗이 교육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중심의 품뿌리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십 년 이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공부방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바자회, 어린이날 행사 등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제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고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와룡배움터'활동의 단계 안에서 2013년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며 알게 되는 도시락을 제대로 싸 오지 못하는 동네 청소년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친환경의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말이다. 올해로 7년째 운영되는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은 입소문을 타고, 1,700명이 넘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연 4억 원을 매출을 냈다.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시작한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은 아이들과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 지역과 지속적인 거래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수단은 반찬가게로 시작했지만, 사전에 오랜 기간 마을 활동의 역사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 간 동네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적이 명확했기에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현재도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와룡배움터'가 있는 이 마을은 마을바자회, 김장 나누기, 복지관 급식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곳과의 연계로 축제를 개최하며 타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료=https://daeguma.modoo.at



자료=https://daeguma.modoo.at



자료=2017.6.14. 대전광역시사회적자원지원센터,
「타지역(대구) 교류회 <동네를 넘어 연대로>를 다녀왔습니다.」

3) 북구 내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인(人)
김지형 대표

(1) 공동육아 - 딱지와구슬어린이집

1990년 말 북구 칠곡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어린이집, 동사무소, 보건소 등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했다. 생활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주민들 사이에 생겨났고, 대표적인 것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딱지와구슬어린이집>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모여, 교사를 직접 고용하고 커리큘럼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다. 먹거리도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를 한다. 현 집을 임대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시작하게 된 학부모 모임은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人) 제공



(2) 협동조합농부장터

동네에 직거래 시스템이 없던 2008년, 친환경급식을 원하던 학부모들과 친환경농업을 하던 경북 농민들의 뜻을 모아 홍플러스를 비롯한 지역 내 대형마트가 아닌 직거래 매장을 만들어 보자며 뭉쳤다. 처음 시작은 북구 대천초등학교에서 열린 거리 농민장터였다. 2주 동안 거리 장터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활동에 재미를 느낀 주민들은 비정기적인 장터에 그치지 않고 매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동천동 주민자치센터에 농민장터를 개설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농산물 생산자, 협동조합 직원, 소비자들까지 모두 법정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을 함께 한다. 초기에는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동네에서 직거래매장이 생겼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소비자가 늘고 주변 농민들이 들어오면서 사업 규모가 점차 확장됐다. 현재 지역 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지역 로컬푸드매장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농부장터는 북구 주민활동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이다.



협동조합농부장터(人) 제공



「대구 마을극단 '동네사람들', 뮤지컬 <빨래>로 첫 공연」



Newsmin.co.kr

자료= 2017.05.19 뉴스민

(3) 문화예술 - '동네사람들' 마을연극단

북구 강북지역(금호강 북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연극동아리가 있다. 우연한 기회에 연극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주민 9명은 연극 공연을 올려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6년 극단 '동네사람들'을 창단했다. 마침 대구시가 '생활문화예술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할 때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 극단 단원들은 무대를 직접 제작하고 함께 대본을 각색했다. 공연 제목은 <동네사람들>. 내용 또한 동네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였다. 동네의 이야기는 공연을 보는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와닿았고 2018년 연말 공연을 시작으로 이후 창작뮤지컬 <빨래> 등 공연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지역문화 현장 사례 : 복구 관음동 사례

1. 관음동 대상지 배경 및 특성	30
2. 관음동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사	32
1)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32
2) 주민들의 입장에서	38
3) 현장답사	38
3. 시사점 및 결론	49

01 관음동 대상지 배경 및 특성

관음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이다. 약 500여 년 전 관음사라는 절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관음동이라고 하며 1994년 7월 북구 칠곡1동에서 분동했다.

관음동은 2~3년 전까지는 도시재생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과거 대비 인구수가 10년 동안 20%가 줄었고, 물리적 환경은 동 내 건물의 83%가 3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하여 대구시에서 2019년 관음동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했다.

관음동은 구암동, 동천동, 관문동 등 인근 동보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많이 몰려있다. 인구수는 적고 고령 인구는 많은 관음동은 이러한 이유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도/자료 =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



북구 관음동에서 활동하는 주민공동체 '맘새로이'팀이 있다. 맘새로이팀은 아동 돌봄과 자녀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연령대로 구성된 모임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엄마의 사회적 자존감과 인식이 새로워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지역의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DOI: 10.1002/for

- ③ **비밀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
 ①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②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③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④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⑤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⑥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⑦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⑧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⑨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⑩ 국가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

- [illegible]

관음동 주민역량강화사업
초지내용 및 향후 계획

▶ 관련 정보

- | 구분 | 종목명 | 주요 내용 |
|--------|---------|--|
| 100-1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2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3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4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5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6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7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8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9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 100-10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예산 1,000억 원, 2020년 예산 1,100억 원 |

	1990-1999	2000-2009	2010-2019	2020-2029
1. <i>General</i>	1. <i>General</i>	1. <i>General</i>	1. <i>General</i>	1. <i>General</i>
2. <i>Specific</i>	2. <i>Specific</i>	2. <i>Specific</i>	2. <i>Specific</i>	2. <i>Specific</i>
3. <i>Other</i>	3. <i>Other</i>	3. <i>Other</i>	3. <i>Other</i>	3. <i>Other</i>

자료 =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그들이 아동 돌봄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성친화적 마을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 1단계에 선정되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개념부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워크숍을 먼저 진행했다. 사업 초기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워크숍 이후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 필요한 도시재생이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임을 체감했다. 여기서 '여성'은 단순히 성의 의미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이 마을에서 더욱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더불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맘세로이팀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마을기획단, 비대면 생태체험학습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했다. 최근 맘세로이팀과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단계 사업팀으로도 최종 선정되어 추가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맘세로이팀과 복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관음동의 도시재
생 위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준비중이다.

02 관음동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사

1) 전문가 자문회의

1. 회의일시	2020. 10. 22.(목) 10:00
2. 회의장소	어울아트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3. 참석자	<p>(사)커뮤니티와경제 김언호 팀장 행복한마을공동체복구인(人) 김지형 대표 복구도시재생지원센터 신창섭 센터장 (재)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 연구위원[10.30.(금) 개별회의 참여]</p> <p><행복복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김병수 팀장, 이현중 PD, 나은영 PD, 문화예술교육사 정혜경, 담당 김혜연</p> <p>총 8인</p>
4. 회의내용	<p>해외 도시재생 사례공유 및 복구 관음동 마을 발전 회의</p> <p>가. 해외 도시재생 (영국 해크니협동조합, 독일 위베라우마울 및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사례 공유</p> <p>나. 관음동 도시재생 주민참여조직 현황 공유</p> <p>다. 지역 도시재생의 지향점 및 2·3차시 프로그램 진행 방향 논의</p>

해외사례 발표

1. 영국 해크니개발협동조합(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
2. 독일 헤센주(Hessen) 위베라우마울(Ueberauer)
3. 독일 베를린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신창섭

해외 성공 사례의 경우 시민들이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공한 경험이 보다 많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정서가 한국과 다르다. 하지만 진행되는 컨텐츠나 설계의 틀은 한국과 유사하다.

국내의 사업의 문제점은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에 이해도가 없는 주민들을 일부로 모아서 주민주도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김연호

어떠한 사례나 문제를 볼 때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하 '해크니')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준 영국의 기존 법적 제도 등.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의 '씨앗'과 같은 제도가 없지만 '사용·수익허가'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 위탁을 받아 수익사업 처분이 가능한 형태. 하지만 어떤 위탁은 관리 및 운영만 된다. 홍성의 마을럽처럼 해외 사례를 시도한 예는 있지만 제도적 접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국을 비롯한 해외사례를 적용, 실행하기 어렵다.

주민 스스로 하는 프로젝트 대다수가 자원과 돈의 문제에 제약이 걸린다. 해크니도 후추통 한 알(1파운드)에 건물을 매입하는 등 자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에 실행 가능 했던 것.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를 찾아서 접목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더불어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마을재생 사례를 보면 지역·인적·역사·문화관광 자원 등 자원을 활용한 곳이 많다. 하지만 거꾸로 해크니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나 수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 한 기존의 사례들과 달리 접근의 차이가 있다.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면 스스로 노력한다. 해크니는 지역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재원의 일부는 수익사업을 통해, 일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일부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달했을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사업도 자원이 기존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닌 관련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는 것이, 즉 강점을 찾는 게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수 한국 또한 세제 혜택 등 제도의 변화가 있으나 아직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들 간 네트워크를 맺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김언호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내 시민참여방식 조직도를 보면, 우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중 공공기관에서는 공납방식을 쓴다. 기관에서 피드백은 주지만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주민·시민단체는 집합워크숍을 열어 직접 의견을 얘기해서 모으지만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있다. 그러면 '가가호호'를 돌리는 것처럼 공납과 집합워크숍의 형태를 더하면 어떨까. 의견을 돌릴 때는 개별 의견을 받아서 그룹핑을 하고, 제시되는 의견을 시각화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드러낸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개인으로 참여해도 자신이 참여했을 때 나의 의견이 고려된다는 느낌을 주기에 차후 주민 참여성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답만 얘기하려는 사람들의 특성이 강해지는 면대면 방식이 아니기에 훨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김지형 마을 발전의 시작은 주민들이 모여 진행한 하나의 작은 성공경험이다. 그 시점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하며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음동은 공동체로 엮여 진행한 경험이 다소 적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신창섭 매주 관음동 도시재생을 얘기하며 형성된 관음동 주민공동체는 학부모로 구성된 아주 일반적인 주민들이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2차 심사를 받았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중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모는 1차 지원금 500만원, 중간평가결과가 좋으면 1500만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그 추가지원금을 이번에 확보했다. 올 해 11월에 예비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데 '관음동도시재생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체 내에서는 '여성 친화적 도시'라는 키워드로 발전방향을 잡았다. 여기서 '여성'은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지형 관에서 주도하여 공동체를 꾸려서 지속가능하게 남아있는 성과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데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참여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관음동 또는 지역에서 현재 활동하는 공동체(소규모 집단)를 파악해야 한다. 동네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관음동의 특징은 주민 연령대가 높고 도시개발 진행이 더뎠다. 문화적 혜택·활동·공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소규모 모임이 있어서 축제를 개최하거나 공간을 만들어 이들의 문화적 요구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포인트(거점)를 잡아야 한다.

김병수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의 내 시민참여방식 조직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지향했던 문화도시 설계도와 유사하다. 두 설계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 내 소규모에서부터의 라운드테이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결과물·콘텐츠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혼자 결정할 수는 없기에 주민들의 의중이 담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거버넌스 형성 또한 중요하다.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주민의 점진적 성장을 유도한다.

하지만 참견은 하지 않고 지원만 한다는 의미의 팔길이 원칙 염두해 두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참견기관이 아니다.

전문가기관들도 주민만큼 마을을 알아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물리적인 것만을 위한 게 아니므로 지역 내 재생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자원을 알고 찾아야 한다.



“ 공동체라고 해서 뭐든지 같이 하자가 아니라 그냥 내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서로 인사하는 것,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부영아파트가 이를 보여주는 예시다. 3교대 근무의 공장근로자가 많이 사는 부영아파트는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윗집, 아랫집 간 서로의 교대근무를 배려해 주기 시작했다. 조금씩 배려해주고 남는 반찬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그게 공동체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2) 주민들의 입장에서

1. 회의일시	2020. 11. 2.(월) 13:00
2. 회의장소	어울아트센터 2층 회의실
3. 참석자	<p>〈사〉커뮤니티와경제 김언호 팀장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人) 김지형 대표 〈제〉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 연구위원[ZOOM 화상회의 참여]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장우선 선임연구원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 [맘세로이]팀 구성원 6인</p> <p><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나은영 PD, 담당 김혜연</p> <p>총 12인</p>
4. 회의내용	<p>관음동 주민공동체와 함께 하는 국내 사례공유회 진행 가. 국내 도시재생 사례(철곡인문학마을, 우렁이밭상형동조합 등) 사례 공유 나. 사례 시사점 분석 논의</p>



김지형 참고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 사례는 매우 많다. 하지만 사례를 표면적으로 접하기보다는 그것이 시작되게 된 과정, 왜 하게 되었는지 계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음동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찾아서 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네에서 함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의사결정 중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임이 해산되거나 시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공동체가 움직이는지 알고자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기획이 닿는대로 주민들이 함께 선진지를 방문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주민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중점과제이다.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 처음의 실행이 사소하고 작아도 괜찮다. 작더라도 첫 성공의 경험이 함께 쌓여야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추후 해야 하는 사업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김연호 민간도서관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을 참고하는 것도 추천한다. 2010년 이전에는 민간도서관이 더불어숲 도서관 외에는 많이 없었다. 민간도서관이란 지역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익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보고 시험 공부하는 도서관 말고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자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부모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함께 운영하고 부모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하는 그런 곳을 말한다. 지역안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돼주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답사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먼저 중요하다. 보조금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고 동일한 고민에 관심이 있는 이웃을 참여시킨다. 결국, 고민하고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누군가 시켜서 움직이는 조직은 이에 따른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해체된다.

김지형 소개된 사례는 오랜 시간의 결과이다. 이들의 초기 시작은 다 작게 시작한다.

주민1 과연 우리가 잘 진행해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직접 다 찾아보자니 시간상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에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계획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민2 작은 것이라도 일단 하나를 열심히 하자는 말이 와닿았다. 그리고 단순히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곰씹어야 할 그것 같다.

주민3 기존에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다. 지금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관음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민4 칠곡인문학마을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어로리의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들이 멋진 공동체를 만들었음을 보았고,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할머니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걸 보며, 나 또한 저런 마을 속에서 역할을 하며 할머니들이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주민5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모여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도 아무것도 몰랐다. 집에서 살림만 한 내가 할 수 있을까, 겁이 났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발 먼저 빼면 후회할까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 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 우리는 이제 막 세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해봤는데, 그런데 할 게 많으니 오히려 욕심이 생긴다. 우리 관음동도 소개된 사례의 마을처럼 프리마켓, 마을기업 등을 비롯한 다양하고 재밌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주민6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 나온 목적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실천해보라는 말이 와닿았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동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신은 서지 않지만 일단 움직이고 싶다.

오늘 이 시간 덕분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었다. 우리 마을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을 느꼈다. 앞으로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우리가 초기 마음 그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확신한다.



3) 현장답사

1. 일시	2020. 11. 10.(화) 11:00
2. 장소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46, 3층)
3. 참석자	<p>(사)커뮤니티와경제 김연호 팀장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人) 김지형 대표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신동희 관장</p> <p><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문화정책팀 이현중 PD, 강구인 PD, 김희정 PD, 문화예술교육사 정혜경, 담당 김혜연</p> <p>총 8인</p>
4. 내용	<p>북구 소재 민간도서관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현장답사</p> <p>가. 민간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내 제공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안내 및 현장답사</p> <p>나. 마을축제 논두렁밭두렁축제 안내</p>



김혜연 현장답사를 진행할 장소를 고민하던 중에 2회 차시에 마을 내 민간도서관 얘기를 해주셨고 지역 안에서 민간도서관이 공동체 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알고자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로 답사장소를 정했다.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회 차시 함께 언급되었던 논두렁밭두렁축제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싶다.

김지형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 10월에 8회째 논두렁밭두렁축제가 끝났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칠곡4지구에 위치한 칠곡경대병원 앞에 20만평의 넓은 논이 있다.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농업자원관리원, 두 곳의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농지이다. 도심 속 보기 드물게 넓은 농지라서 이곳을 잘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였다. 농지에서 열리는 축제만큼 주제는 처음부터 허수아비로 잡았고 2013년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았다.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해 다음부터는 허수아비 만들기를 축제의 방식으로 확장해서 주민들이 와서 직접 제작해 보거나 허수아비 공모전을 열어 참가 접수를 받고 심사해서 제작된 허수아비에 점수도 매기는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20점을 전시했다. 전시는 2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축제를 오래 하다보니까 가을 이맘때면 행사가 열리는 것을 미리 알고 동네 사람들이 보러온다. 특히 동네 어린이집에서 많이 온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열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축제를 열 때 허수아비가 중심이니까 전시 개최에 집중하고 플리마켓, 공연 등 다른 부대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코로나19 극복기>라는 주제의 추가적인 공모전을 했다. 시·수필·사진 등 공모전을 열어 작품 90여점이 접수되었다. 참가작은 축제 장소에 줄을 달아서 전시를 했고, 이는 행사 현장의 분위기를 활기를 띠었다.





이현중 예전에 축제가 시작될 때 유모차부대라고 불리는 30명의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행사장을 돌면 그 뒤로 풍물패가 따라오던 퍼레이드가 인상적이었다.

김희정 축제날 함께 열리는 플리마켓이나 부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 등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무료로 제공되는가.

김지형 북구민에게만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이곳 축제 장소에서는 현금을 쓰지 못하게 한다. 주민들이 오면 입구에서 현금을 교환한 행사용 화폐를 제공한다. 판매자들은 행사가 끝나면 행사용화폐 금액에서 10%행사기금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간다. 행사기금은 다음 해 축제를 열 때 보태지거나 마을 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김언호 마을공동체활동에서 허수아비축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지형 이 동네는 일단 넓다. 도보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간이 방대하다보니 사람간 네트워크가 긴밀하지 않다. 칠곡지역이 공동생활권이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안심지역처럼 동네에서 몇 발자국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발전의 출발자체가 산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타 지역은 하나가 잘되면 다른 하나가 파생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와 달리 이 동네는 곳곳에서 각자 활동하며 독립성이 강하고 연결이 있어도 느슨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단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동체 활동의 대부분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조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경제조직이 아닌 마을 축제를 통해서도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공동의 모임에 가려면 시설의 회원가입을 하는 등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 축제에는 누구든지 편하게 오고 만날 수 있다. 축제 날 허수아비를 함께 만들어보거나 부스를 열어 물건을 팔아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발을 들이는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동희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는 문을 연지 16년 정도 되었다. 원래는 관음동에서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역 안에 공공도서관이 없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도 늘고 어린이들도 많아지는데 반해 문화적 인프라는 부족했다. 그래서 마을 안에 도서관이나 육아·교육과 연계해서 공동체 문화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처음 출발을 했고 운영을 했다. 이후 공공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이 생기고 난 뒤 10년 전 지금 구암동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전환했고, 주로 하는 활동은 기본 도서대출서비스 외에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동아리모임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반에는 주로 어린이대상 그림책감각화이나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부모들을 중심으로 동아리 모임(그림책 읽는 동아리, 자녀교육과 관련한 교육동아리 등)을 가졌다. 최근에는 부모에서 대상을 넓혀서 성인대상 책임기 모임이나 낭독모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혜연 마을공동체를 얘기할 때 도서관이 종종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뭐가?



도서관을 이전할 때 후원해준 주민들의 이름을 벽에 붙여놓았다

신동희 예전에는 가구가 대가족이었고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건 이웃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돌보았다. 요즘에는 도시생활구조가 다 개인적이다보니 혼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나와서 누군가와 같이 활동하는 일이 적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공공재인 도서관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창한 공동체 운동은 아니지만 그저 책을 함께 보고 도서관 안에서 열리는 소규모 동아리 모임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 간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이현중 민간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차별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신동희 사람들과 관계성 형성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관계성보다는 정확한 서비스제공을 중요시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직원과 일반이용자와의 관계성이 거의 없다.

민간도서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구는 어떤 책을 좋아하고, 누구의 아이는 어떠한지 서로 알아가며, 그러한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거리가 있으면 "우리 이거 해볼래?"라며 같이 활동해볼 수 있다. 도서관 직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체가 되어 관계성이 형성된다.



자료=행복한마을공동체복구인(人) 제공

03 시사점 및 결론

관음동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량, 즉 개인적 역량과 조직적 역량 역시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적 역량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역량을 의미하는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사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안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며, 조직적 역량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정은 도시재생사업, 더 나아가 지역재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관음동은 국내의 많은 도시재생 성공사례지역만큼 많은 공동체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관음동 주민들은 지금 시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은 '작은 활동체함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고 이를 통해 마을 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다. 그 발판을 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단단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문제를 계속 발굴, 이해, 해결해보고 이를 위해 형성된 모임으로 작더라도 다양한 성과들을 축적·사업화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생활문화와 예술문화는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학습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사업, 생활문화공동체사업, 그리고 다양한 소셜리빙랩 등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같이 해나가는 것도 좋은 연습과 실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해 함께 종종 집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반대편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춤이나 악기를 배워 마을축제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허수아비축제로 잘 알려진 '논두렁밭두렁축제'가 그 좋은 사례이다. 지역에 살면서 '부족'하다고 혹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일상 속 문제들을 찾아 대안을 고민하고, 이것들은 스스로, 혹은 관 또는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대안을 직접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방식의 공동체사업을 통해 이웃을 알고, 이웃의 문제들을 알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를 더 이해하고 애정하게 되는 것이다. 관음동에서 얘기하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약자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약자들이 이동하기 좋고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든 어우러진 사회를 말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어우러지는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재생의 한 그릇이다. 그릇 안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같이 만들 사람들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을 시작한 2020년도는 저에게 많은 것이 새로운 한 해였습니다. 동네를 기웃거리고 지역에서 재미난 일을 찾아다닐 줄만 알았던 제게 '문화기획'은 생소했고 무엇을 정말 의미하는지 저만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했었습니다. 행복복구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인력으로 일하게 된 5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의 시간은 이를 배우고 적응해나가는데 많은 애를 썼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문화인력은 말 그대로 문화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인력입니다. 문화를 통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결핍과 수요를 채우는 전문인력이기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민들과 더불어 가장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지역재생은 그런 관점에서 지역문화인력과 맞닿아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 재생을 꾀하는 변화를 주민들과 알아가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학습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지역을 고민하고 구체화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재생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그를 위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관음동의 주민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문화 '기획'을 해보며 문화기획자일수록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지역민, 역사자원, 문화트렌드 등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알아야 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다만 7개월의 시간을 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정립된 생각을 프로젝트에 다 녹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무엇인지, 마을에서 공동체는 무엇인지, 오롯이 '나'의 생각을 정립해볼 수 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인력 김혜연

참고문헌

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재민, 2019, 커뮤니케이션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7. 9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daegumaeul.org>

HCD 해크니개발협동조합 홈페이지, URL: <http://www.hced.co.uk>

『2019년도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마스터플랜』,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홈페이지, URL: <http://hausderstatistik.org>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처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전화 053) 320-5120
홈페이지 <http://www.hbcf.or.kr>

기획/제작 문화사업본부 김혜연
참가자문위원 김안호((사)커뮤니티와경제 팀장), 김지형(행복한마을공동체복구인(人) 대표),
신창섭(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재민((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협조 문화정책팀 김병수팀장, 이현종PD, 강구인PD, 김희정PD, 나은영PD, 정혜경 문화예술교육사
(재)지역문화진흥원 컨설턴트 이창원(인디053 대표)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행복북구문화재단

※ 본 제작물은 2020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제작물은 2020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